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경제인 대화'가 열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 총수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美 관세폭탄·정책 '올스톱'... 유연한 글로벌 대응책 필요

K-산업 재도약

국내 산업계가 2025년 글로벌 복합 위기를 넘어 재도약 준비에 나선다.

국내 대기업들은 탄핵정국에 이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폭탄과 고환율까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을 새로운 기술과 시장으로 돌파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이 멈춰서면서 기업들은 각자도생으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군은 고환율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도 관측된다.

반도체업계, 中 저가 물량 공세에 HBM 시장선점, 경쟁사 협력 박차
美 상무부와 보조금 협상 최종 확정

자동차업계, 수입차 추가 관세 현실화 생산시설 확대·파워트레인 대응

이에 반도체 전자 업계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던 반도체 특별법이 보류되자, 해외 시장 다변화와 신기술 투자 확대를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메모리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의 저가 물량 공세에 주력 사업인 레거시(범용) DRAM의 수익성 악화가 길어지고 있다. 실적 반등을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HBM 양산 초기 수율 확보에 사활을 건다는 분위기다. 6세대인 HBM4 개발을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차세대 HBM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커스텀) HBM 사업화에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와의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과 동침'도 불가피하다는 전

략이다. 파운드리 고객 확보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초격차'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자를 지속하는 파운드리사업의 수장을 교체하고,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최종 확정하며 미국 투자를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6조9000억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 달러(6600억원)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전체 투자금을 10조원 정도 줄인 만큼 후공정 패키징 시설을 제외하고, 공장 2곳과 연구개발 시설을 짓게 된다. 투자 효율을 감안해 4나노보다 2나노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2028년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본격화하며, AI 칩 외부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자동차 분야는 유연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추가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수입차에 대한 관세 확대를 강조한 만큼 현대차그룹의 부담도 크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은 약 40%대로 기본관세 10% 부과시 차량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생산시설 확대와 유연한 파워트레인 대응능력을 토대로 영업기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준공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비중을 약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파워트레인에서 양호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타 업체 대비 규제환경 및 소비자 선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는 3일 예정된 신년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에 대한 전략을 공

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발 저가 공세, 고환율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업체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배터리산업, 전기차 수요회복 더더 中 저가 배터리, 고환율 부담 줄여야
철강산업,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

조선업계, 고부가 친환경 선박 중심 수주 확대 통한 실적 개선 가속화
美 조선업·방산파트너 전망 '긍정적'

또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저가 배터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1년 상반기 18.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38%까지 상승했다. 달러로 환전자금을 빌려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한 만큼 고환율에 따른 채무 부담 줄이기에 집중한다. 삼성SDI의 스텔란티스 미국 현지 배터리합작 법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아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 및 수입쿼터 축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 물량 밀어 넣기에 따른 부담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발 수입물량 역시 잠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철강업계를 대표해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조선업계는 올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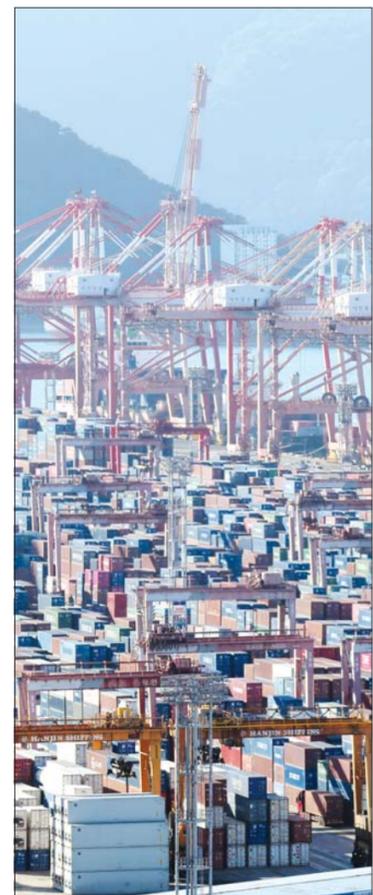
조선업계는 저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중국과 달리 고부가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통한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여기에 한화그룹의 경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2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Philly) 조선소 지분(100%)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세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구남영·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